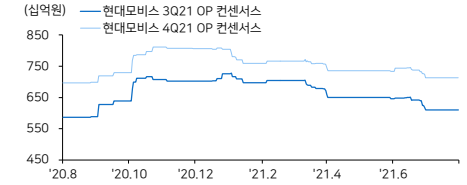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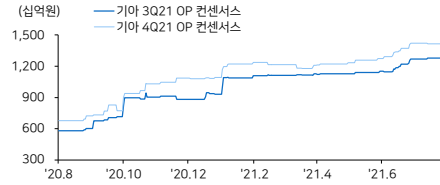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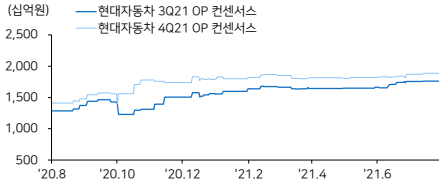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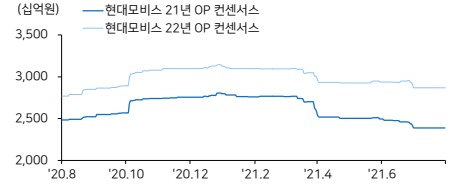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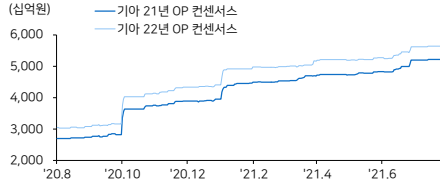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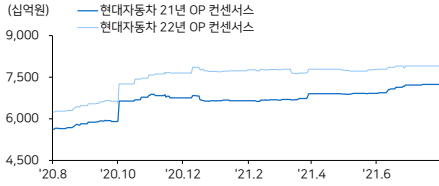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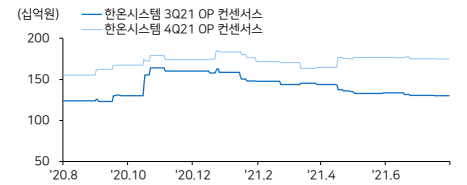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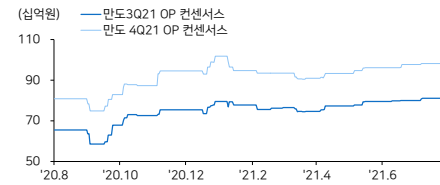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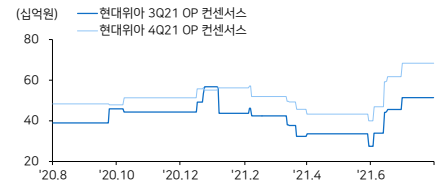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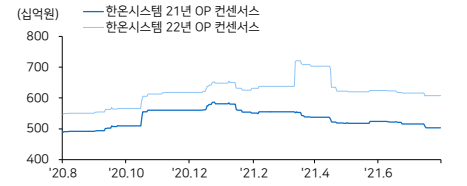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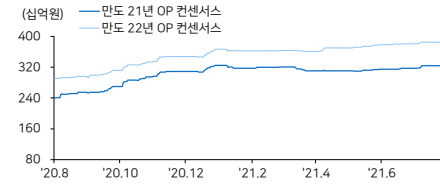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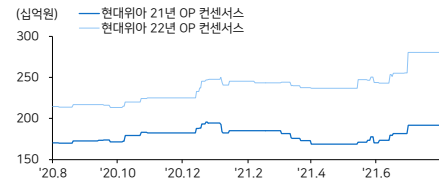


##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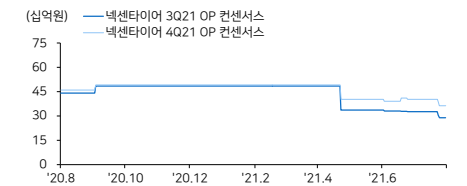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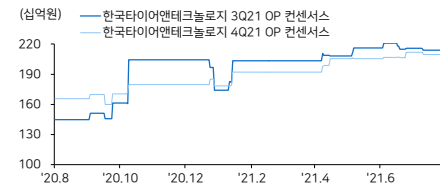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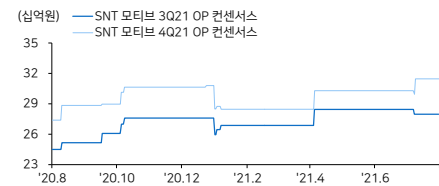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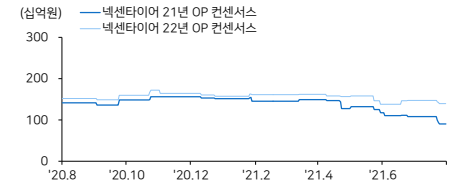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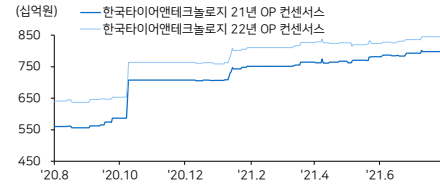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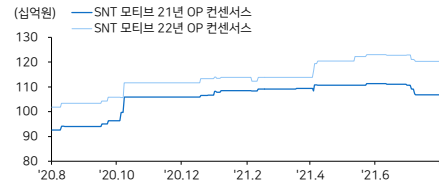
### 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### 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### 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

### 0.7%의 반란!...현대차·기아, 인도네시아 정조준 (한국경제)

현대차는 올해 말 인도네시아 브카시시에 연 1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. LG에너지솔루션과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, 2024년 상반기부터 연 15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함.

<https://bit.ly/2WAD9C0>

### 현대차그룹 3총사' 특허 5만건 육박... 미래 모빌리티 속도 (파이낸셜뉴스)

현대차·기아·현대모비스의 합산 보유 특허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지난해 대비 3610건 증가한 48,340건으로 집계됨. 전기차, 자율주행차, 수소 등 미래차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나선 결과로 분석됨.

<https://bit.ly/2Yb8F9h>

### 현대위아, 러시아공장 막바지 투자...캡티브들량 우선 (the bell)

현대위아는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러시아 엔진 생산공장에 막바지 자금을 투입함. 러시아 생산공장은 가동 직후 전량 현대차 러시아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며 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을 확대 계획.

<https://bit.ly/3sZ5S85>

###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폭스바겐, 2030년 수동변속기 투입 전면 중단 (오토데일리)

폭스바겐은 오는 2023년에 출시될 3세대 신형 티구안부터 수동변속기 모델을 선보이지 않을 예정.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이미 연 2030년부터 미국, 중국, 유럽에서 수동변속기 모델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<https://bit.ly/2WesUGP>

### 현대차 경형 SUV 'AX1' 출시 임박...경차 시장 부활 신호 될까 (이데일리)

현대차는 다음 달 15일부터 AX1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할 계획. 자사의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며, 이는 경차의 경쟁요소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촉진비를 줄이기의 일환으로 풀이됨.

<https://bit.ly/3ytsHti>

### 제네시스, '2022 GV80' 출시...6인승 모델 추가 (THE GURU)

제네시스는 30일 신형 GV80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힘. 6인승 모델을 추가하고 고급 편의 및 안전사양과 내·외장 컬러를 더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.

<https://bit.ly/3mQdZnK>

### 7월 한만 수출입 물동량 14% 증가... 자동차가 최대 호자 (중소기업뉴스)

지난달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자동차 수출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자동차는 친환경차와 SUV 수출 호조와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28.4% 증가한 686만t으로 집계됨.

<https://bit.ly/3WxVek0>

### 소니·TSMC 반도체 동맹군에 '토요타 엔소' 합류 (THE GURU)

소니와 TSMC의 반도체 동맹에 토요타 계열사인 차량부품 회사 엔소도 합류. 부품업체는 대규모 공급처를 확보하고 완성차 기업은 안정적인 칩 공급망을 확보, 원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.

<https://bit.ly/3WxVek0>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